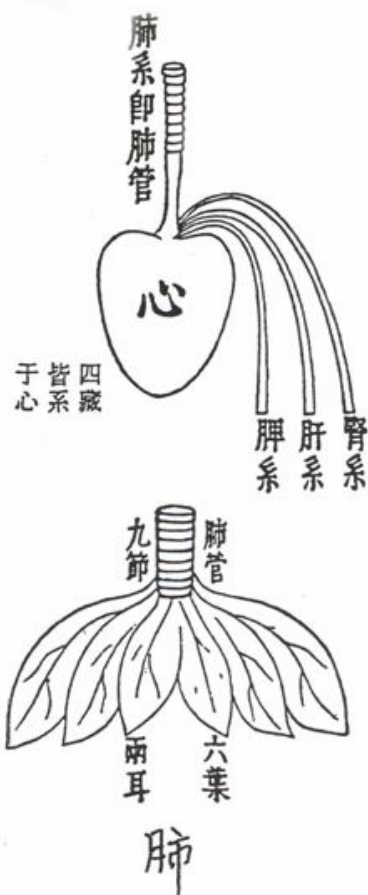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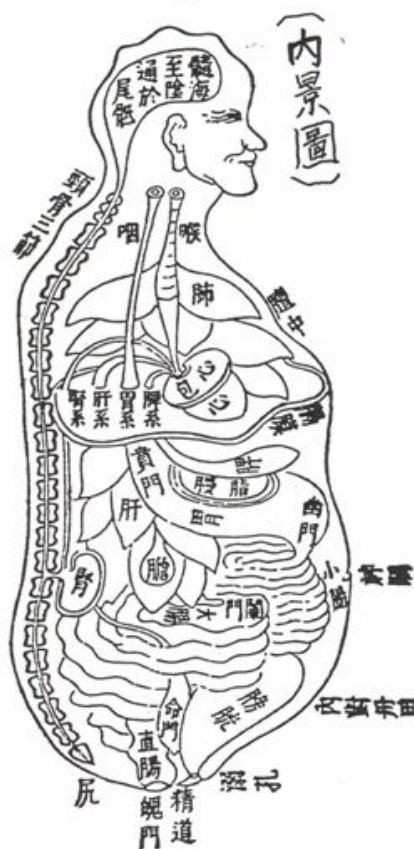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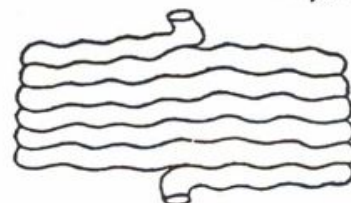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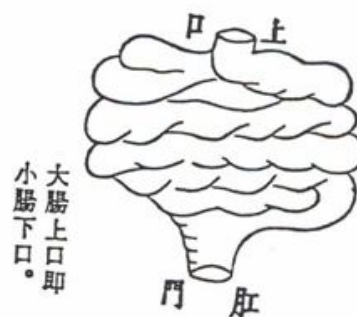
[營氣순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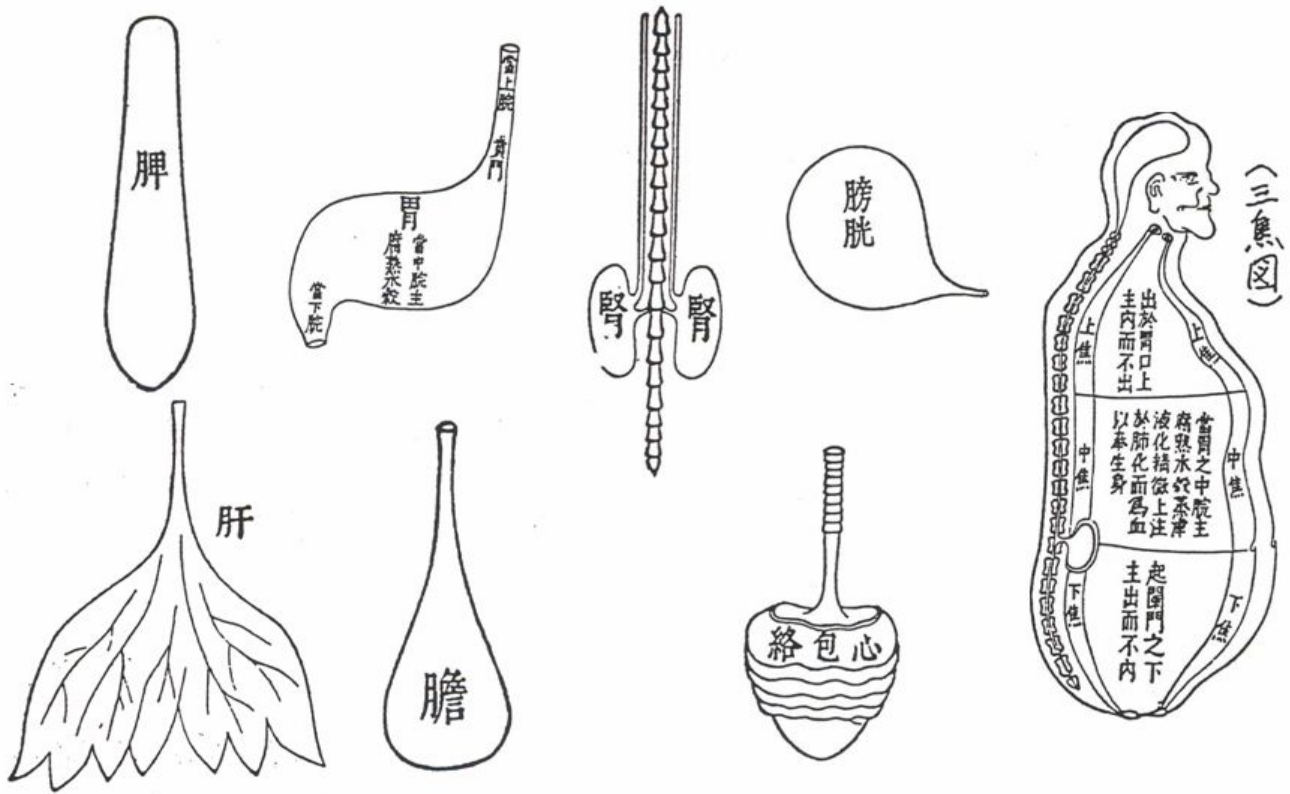
口下之胃即口上腸小



關口腸即下小
門名上大腸



大腸上口即
小腸下口。



제1주 장상의 개념 및 장상학의 기본특징

1. 장상(藏象)

장상(藏象) : 내재 장부의 생리활동 및 병리변화가 인체의 외부에 반영된 징상(徵象).

→ 장부의 기능변화를 추론 또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장상은 일종의 동태적인 생리·병리적 개념이며, 살아있는 인체에서의 기능 중심의 구조 기능적 개념임.

(1) 장부(臟腑)와 장상(藏象)의 개념

- <類經·藏象類> : “象, 形象也, 藏居于內, 形見于外, 故曰藏象.”

藏象 : 인체 계통의 현상과 본질의 통일체.

- 藏 : ①藏匿(장익), ②貯藏(저장), ③臟腑(오장육부와 기항지부를 포괄하는 말임.)
- 象 : ①現象, ②形象, Image, ③徵象(어떤 유형물질의 내부 규정성의 표현)
- 有諸內, 必形于外.” → 장상이란 내재 장부의 생리활동 및 병리변화가 인체의 외부에 반영된 징상(徵象)이다. → 이러한 징상은 내재 장부의 기능 변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장부의 기능변화를 추론 또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易經> : “遠取諸物, 近取諸身.”
- <靈樞·本神> :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其所病矣.”
- <靈樞·本臟> : “肺應皮, 皮厚者, 大腸厚, 皮薄者, 大腸薄, 皮緩腹裏大者, 大腸大而長, 皮急者, 大腸急而短, 皮滑者, 大腸直, 皮肉不相離者, 大腸結.”
- 臟腑와 藏象 : <내경>의 오장은 혈액의 오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생리 기능의 다섯 가지 유형 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臟腑는 인체 내부에 있는 해부해서 볼 수 있고 촉지(觸知)할 수 있는 유형의 실체 장기(오장 육부와 奇恒之腑를 모두 포함)를 가리키는 말이고, 藏象은 일종의 동태적인 생리·병리적 개념이며, 살아있는 인체에서의 “기능 중심”의 구조기능적 개념이다(장부뿐만 아니라 그 기능 계통을 모두 포함함).
예컨대, 肝하면 단순히 Liver 만을 가리키는 것(장부 개념)이 아니라 Liver를 포함하는 간기능 계통을 망라하여 그 구조물과 기능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장상 개념)인 것이다.
- <靈樞·經水 第十二> :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 其藏之堅脆, 府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清濁, 氣之多少,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氣血, 皆有大數.”
- 장상학설은 장부와 형체관규(形體官竅), 신지(神志)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정체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장(臟)과 부(腑), 기항지부(奇恒之腑)의 차이

- 藏(臟)은 貯藏(저장), 閉藏(폐장)의 의미, 府(腑)는 府庫(부고)의 의미.
- 오장은 실체장기(實體臟器)로서 정기와 정신을 저장하고(五神藏), 육부는 공강장기(空腔臟器)로서 水穀(수곡)을 傳化(전화)한다는 공동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오장은 음에 속하고 육부는 양에 속하여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며 각각 外候가 있다.
- 기항지부(奇恒之腑 : 腦・髓・骨・脈・膽・女子胞)는 형태상으로는 공강장기와 비슷하지만 그 기능상으로는 오히려 실체장기와 비슷하여 臟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腑라고 하기도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기항지부라고 한다. 따라서 기항지부는 음양표리의 배속이 없다.
- 육부는 음식물의 수납, 부숙(腐熟), 소화, 흡수, 배설을 담당하므로 通暢해야만 한다.
 - ① <靈樞・本藏> : “五藏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六府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
 - ② <靈樞・衛氣> : “五藏者, 所以藏精神魂魄者也. 六府者, 所以受水穀而行化物者也.”
 - ③ <素問・五藏別論> :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寫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輸寫者也. 魄門亦爲五藏使水穀不得久藏. 所謂五藏者, 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 所以然者, 水穀入口, 則胃實而腸虛, 食下, 則腸實而胃虛. 故曰, 實而不滿, 滿而不實也.”

(3) 장상학설(藏象學說)의 형성

- 장상학은 살아있는 유기적 정체인 인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장부・조직・기관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 및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체는 정신과 육체의 통일체로서 각 조성 부분간에 형태구조상 분할할 수 없고, 생리기능상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며, 물질대사상 서로 연계되고, 병리변화상 서로 영향을 미쳐 구조와 기능의 통일, 물질과 대사의 통일, 부분과 전체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정체관). 따라서 장상학은 한의학의 해부, 생리, 병리, 진단, 예방, 치료, 방제, 약물 등의 각 방면을 일관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장상학은 다음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고대의 해부지식
- ② (인체의 생리 병리 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 관찰
- ③ 대량의 임상 경험
- ④ 고대중국철학의 영향 및 삼투 : 음양론, 오행론, 주역, 기타
- ⑤ 직관적 관찰 인식

(4) 장상학설(藏象學說)의 발전

장상학은 다음을 바탕으로 해서 부단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 ① 장부의 생리병리적 특징 인식
- ② 장부 병리변화의 규율에 대한 인식



- ③ 장부 용약규율에 대한 인식
- ④ 장부 치법의 부단한 축적

2. 장상학의 상관(相關) 이론

(1) 경락론 (→ 자세한 내용은 교재 제 5장 경락을 참조.)

- 經絡: 경맥과 락맥의 통칭으로 기혈의 通道를 말하며, 전신의 각 장부 조직 기관을 망라하여 하나로 연결해준다.
- 경락학설의 주된 의의 : 장상학설과 결합하여 병리변화를 해석하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임상치료의 지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 경락의 기능 : ①기혈을 운행시켜 음양을 조절하고, ②病邪에 대항하여 증후를 반영하고, ③자극을 전달하여 허실을 조절한다.

1) 경맥(經脈) :

① 十二正經 :

手三陽經(從手走頭) : 수소양삼초경, 수양명대장경, 수태양방광경.

手三陰經(從胸走手) : 수궐음심포경, 수소음심경, 수태음폐경.

足三陽經(從頭走足) : 족소양담경, 족양명위경, 족태양방광경.

足三陰經(從足走頭) : 족궐음간경, 족태음비경, 족소음신경.

② 奇經八脈(기경팔맥) : 임맥(任脈), 독맥(督脈), 충맥(衝脈), 대맥(帶脈), 음교맥(陰蹻脈), 양교맥(陽蹻脈), 음유맥(陰維脈), 양유맥(陽維脈).

③ 十二經別 : 十二正經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正經.

2) 락맥(絡脈) :

① 15별락(別絡) : 12정경의 별락, 임맥의 별락, 독맥의 별락, 脾經의 大絡이 각각 1개씩.

② 부락(浮絡) : 체표의 얇은 부위를 흐르는 락맥

③ 손락(孫絡) : 제일 얇은 부위의 락맥

(2) 정신·기혈·진액론 → 제 2주차 강의와 제 3주차 강의

(3) 체질의학론

- 인류의 체질 특징, 체질 유형, 체질의 차이 규율 및 체질과 건강 및 질병의 상관관계를 규명



응용하는 분야.

- 체질원인 : 품부(稟賦) 유전, 성장단계, 환경조건, 심신작용 등
- 사상체질의학

3. 장상학의 기본 특징

(1) 오장일체관

- ① 심장은 군주가 되고 나머지의 장기는 신하가 되어 직분이 차례로 나뉘어 있다.
cf. 腎・命門爲根本, 脾胃中土.
 - 심은 전체 생명의 주재(主宰)의 측면에서, 腎은 생명의 뿌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비위는 모든 생명활동의 에너지 공급원의 측면에서 각각 가장 중요시 된다.
- ② 장부상관(臟腑相關) 표리음양배속
 - <靈樞・本藏 第四十七> : “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 心合小腸, 小腸者, 脈其應. 肝合膽, 膽者, 筋其應. 脾合胃, 胃者, 肉其應.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
 - ※ 心包含三焦
- ③ 藏瀉相因(장사상인), 相補相成(상보상성) → 장부일체
- ④ 經脈絡屬(경맥락속), 循環流注(순환류주) → 경맥일체
- ⑤ 神形相依(신형상의), 緊密聯繫(긴밀연계) → 형신일체

(2) 천인일체관(天人一體觀)

천지와 만물은 한 근원이라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정체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운동변화를 하고 있으며, 만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 역시 그러하다. 사람은 천지의 氣로 태어나 천지의 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체의 구조와 생리병리가 모두 천지변화에 상응하므로 양생치병(養生治病)도 천지변화에 순응해야만 한다.

1) 천지일체(天地一體)

- ① 천지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다.
- ② 천지만물이 사람과 더불어 한 근원이며 하나의 정체를 이루고 있다(氣一元論).
天地與我同根(천지여아동근), 天地與我同一體(천지여아동일체),
- ③ 사시일체(四時一體) : 춘(春)·하(夏)·장하(長夏)·추(秋)·동(冬) — 生·長·化·收·藏(생·장·화·수·장). 사시변화는 음양변화요 음양변화는 혼원일기(混元一氣)의 동정굴신(動靜屈伸)에 의한 변화이다.
- ④ 육기일체(六氣一體) :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의 육기변화 역시 陰陽二氣의 승강 진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 ⑤ 만물일체(萬物一體) : 천지 가운데에 만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계통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정체이다. (오행귀류(五行歸類) 참조.)

- ⑥ 陰陽消長(음양소장), 恒動平衡(항동평형) :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며, 전체적인 조화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

2) 천인상응(天人相應)

인체는 소우주로서 천지자연의 모든 변화 — 주야, 계절기후, 풍토지리 등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병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지자연의 변화원리에 순응하고 또한 이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① 사람은 천지의 기로 태어나서 천지의 기로 살아간다.
- ② 사람의 생명원리와 인체의 구조는 천지자연을 본뜬 것이다.
- ③ 천지의 주야, 四時, 기후변화와 풍토지리는 모두 인체의 생리 병리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따라서 양생치병(養生治病)도 천지자연의 변화원리에 순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藏象과 時相

장부와 계절을 오행으로 배속시켜 인체의 생리·병리변화를 추측.

[표 1-1] 오장육부의 天干 배속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五臟	膽	肝	小腸 三焦	心 心包	胃	脾	大腸	肺	膀胱	腎

